

고용조사 브리프

2019 · 겨울 · WINTER

01

청년 전문대졸 전공심화과정 이수 취업자의
현황 및 직무만족도 분석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이용하여

02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자영업 전환 전, 후
사회경제적 특성 변화

고령화연구패널을 이용하여



이 브리프에서 제시된 분석내용과 주장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고용정보원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청년 전문대졸 전공심화과정 이수 취업자의 현황 및 직무만족도 분석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이용하여 -

박진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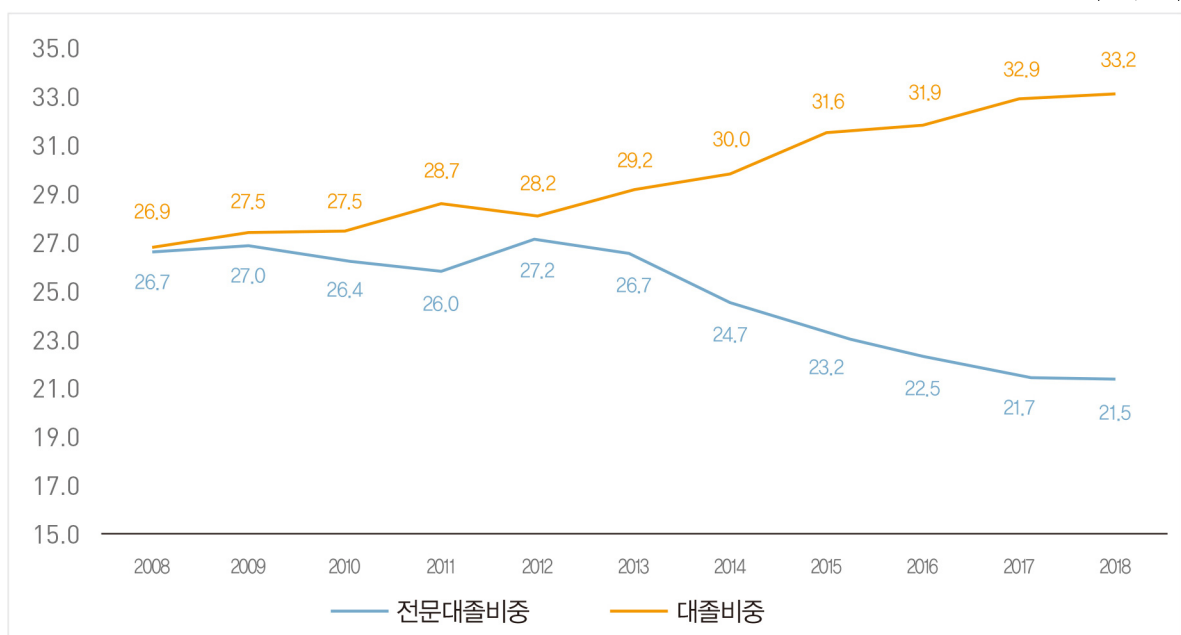
1. 서론

◆ 최근 청년 취업자 중 전문대졸업자 비중이 급격히 낮아졌음

- 청년 취업자 중 대졸자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13년 이후 급격히 높아졌음
- 반면, 청년 취업자 중 전문대졸자 비중은 2013년을 기점으로 이후 급격히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청년 취업자 중 전문대졸 및 대졸자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각년도

* 인력수급전망팀 연구위원(parkjh123@keis.or.kr)

- ◆ 청년 전문대졸 취업자 비중이 감소한 만큼 대졸 취업자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은 전공심화과정의 도입과 2014년부터 재직자 혹은 노동시장 경력이 없어도 전공심화과정 편입학이 가능하게 한 학제 간의 제도변화에 따른 영향일 수 있음
 - 실제로 2008년부터 전문대 졸업자의 계속교육을 위해 일정기간 노동시장 경력(2019년 현재 9개월 이상 재직자)이 있는 경우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을 시켜 전문기술인력양성 및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가 도입
 - 2008년 전공심화과정에 편입한 전문대졸업자는 2,915명이었으나 2019년 현재 105개의 전문 대학에서 14,080명이 입학할 정도로 양적으로 증가함¹⁾
 - 특히 산업체경력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2014년부터 산업체 경력이 없는 경우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2014년 이후 급격히 전문대졸업자 비중은 낮아지는 추이를 보였음
- ◆ 이 글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자 중 전공심화과정 이수 전문대졸업자의 현황과 직무만족도 등을 전문대졸 졸업자와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함

2. 전문대 졸업자의 경제활동 상태

- ◆ 대졸자 직업이동조사자료에서 2016년 2월 졸업자 중 전문대 졸업자는 177,774명으로, 이중 학사 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14,235명임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자가 비이수자와 비교하여 취업상태인 비중이 높고, 미취업 비중은 더 낮게 나타남
 - ※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전문대졸 졸업자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대졸학사학위를 받게 됨
 - ※ 이 글에서 전공심화과정 비이수자는 전문대졸 졸업자로 전문학사학위를 가진자임
 - 전공심화과정 이수자 중 취업 비중은 83.3%인데 비이수자 중 취업비중은 74.7%
 - 전공심화과정 비이수자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2%

1) 교육부(2013) 2014학년도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기본계획,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cce.or.kr/>) 참조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의 전공계열은 의약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에서 비중이 높았음

〈표 1〉 전문대 졸업자의 경황상태

(단위 : 명, %)

구분	전공심화과정 이수자		비이수자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취업	11,852	83.3	122,094	74.7
실업	367	2.6	5,897	3.6
비경황	2,016	14.2	35,548	21.7

〈표 2〉 전문대 졸업자의 전공계열 분포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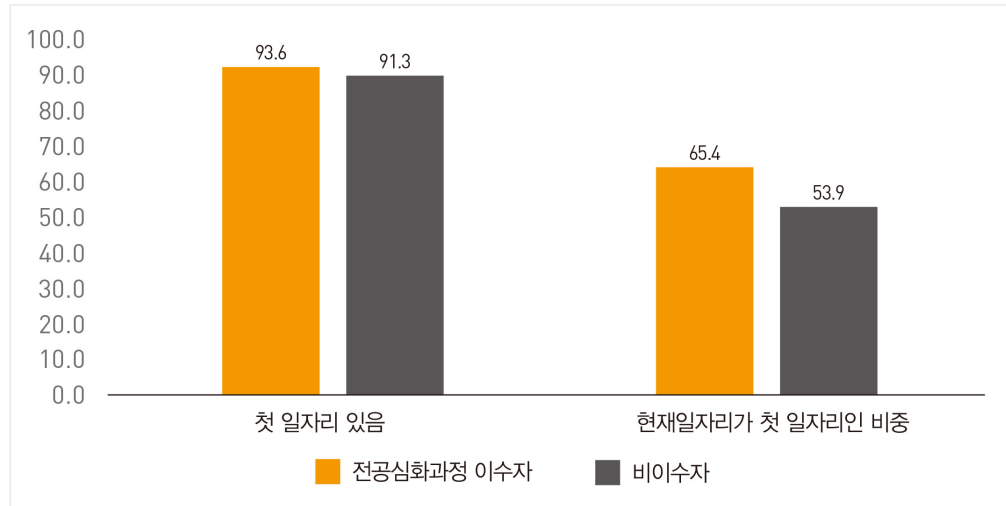
구분	전공심화과정 이수자		비이수자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인문	374	2.6	5,381	3.3
사회	3,400	23.9	44,835	27.4
교육	1,414	9.9	8,856	5.4
공학	2,877	20.2	38,696	23.7
자연	849	6.0	12,628	7.7
의약	3,451	24.2	25,398	15.5
예체능	1,870	13.1	27,745	17.0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의 경우 졸업 후 첫일자리가 있는 비중은 93.6%였고, 조사기준일인 2017년 9월1일까지 첫일자리가 현재일자리까지 유지되고 있는 비중은 65.4%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반면, 비이수자의 첫일자리 유지율은 53.9%에 불과함
- 이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편입학 자격이 2014년 전까지는 당초 재직자인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취업 유지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전문대졸자의 첫일자리 유무 및 첫일자리 지속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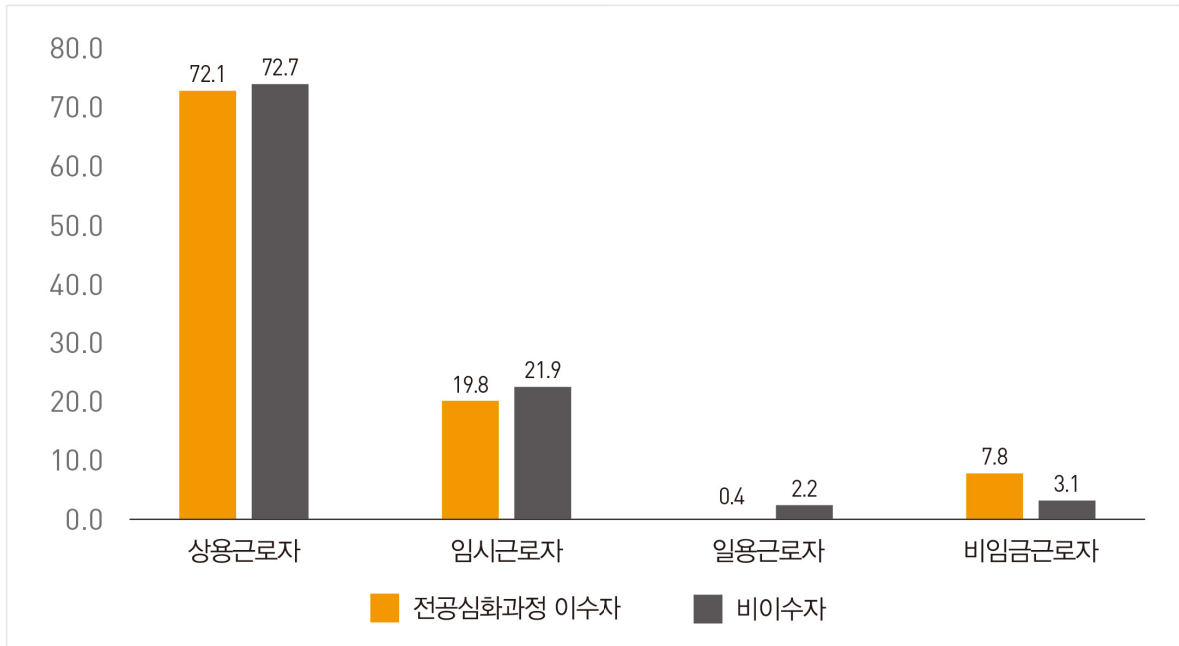
-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한 취업자는 비이수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되고, 중규모 이상 사업체 종사 비중이 높았으며,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고위서비스업 종사비중이 높았고, 전문가 이상의 직종에 종사할 비중이 높았음

- 전문대졸 취업자 중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상용직,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았고, 전문대졸 취업자 중 전공심화과정 비이수자는 임시, 일용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전문대졸 취업자 중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30인 이상 299인 이하 중규모 사업체 종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체 종사자 비중이 높은 반면, 비이수자는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체와 300~499인 규모 사업체 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전문대졸 취업자 중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39% 종사하고 있으며, 교육서비스업 13%, 제조업 11%순으로 비중이 높은 반면, 비이수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순으로 비중이 높았음
- 전문대졸 취업자 중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보건의료 관련직,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경영회계사무관련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등 전문가 직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비이수자의 경우 경영회계사무관련직, 보건의료 관련직 외에 음식서비스관련직, 영업 및 판매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 요약하면, 전문대졸 취업자 중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비이수자와 비교하여 일자리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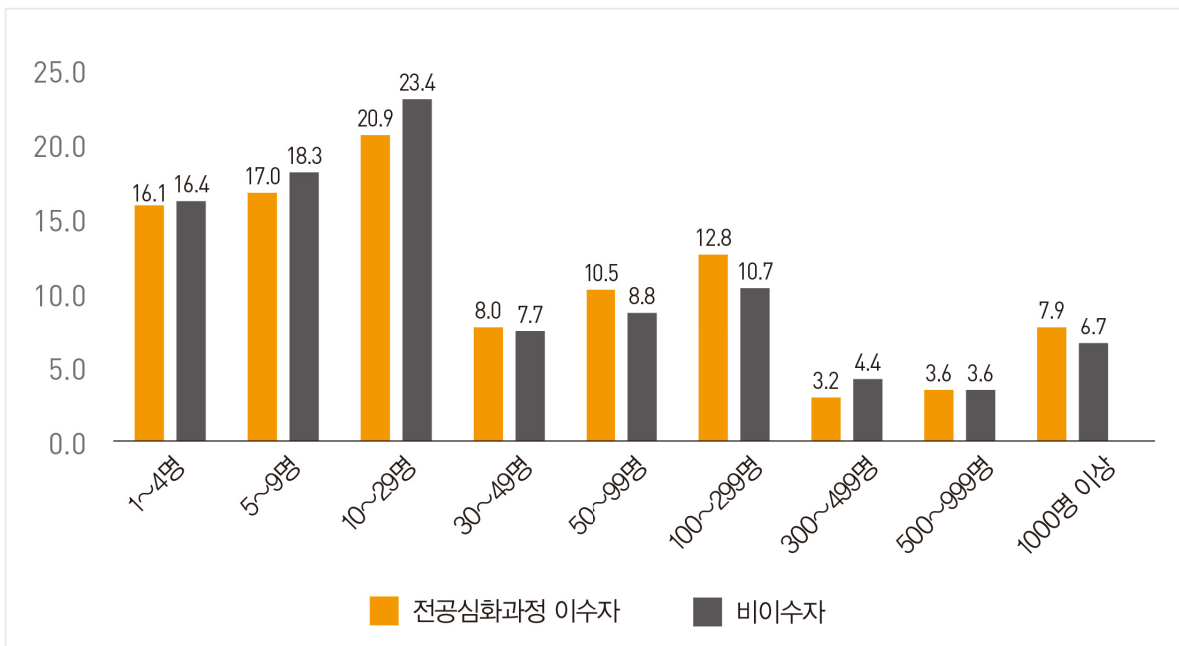
〈그림 3〉 전문대졸 취업자의 첫일자리 종사상 지위별 비중

(단위 : %)



〈그림 5〉 전문대졸자의 첫 일자리 사업체 규모별 분포

(단위 : %)



〈표 3〉 전문대졸자의 첫 일자리 산업별 분포

(단위 : %)

구분	전공심화과정 이수자	비이수자
농업, 임업 및 어업	1.9	0.5
제조업	10.8	15.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0.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0.1
건설업	1.2	4.9
도매 및 소매업	5.5	10.5
운수 및 창고업	0.3	1.3
숙박 및 음식점업	5.0	11.1
정보통신업	4.4	3.9
금융 및 보험업	2.8	1.5
부동산업	1.2	0.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9	5.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5	6.0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9	2.5
교육 서비스업	13.1	7.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4.8	20.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5	3.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	4.8
국제 및 외국기관	0.2	

〈표 4〉 전문대졸자의 첫 일자리 직종별 분포

(단위 : %)

구분	전공심화과정 이수자	비이수자
관리직	1.1	0.2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16.4	19.8
금융·보험 관련직	1.1	0.9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	7.4	4.1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0.3	0.3
보건·의료 관련직	25.1	15.4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2.0	5.9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7.6	6.2
운전 및 운송 관련직	0.4	1.1
영업 및 판매 관련직	3.8	8.7
경비 및 청소 관련직	0.4	1.2
미용·숙박·여행·오락 스포츠 관련직	4.1	5.9
음식서비스 관련직	2.2	8.5
건설 관련직	3.4	2.3
기계 관련직	2.5	5.0
재료관련직	0.1	0.9
화학 관련직	0.3	1.1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1	0.2
전기·전자 관련직	3.7	4.6
정보통신 관련직	2.8	2.2
식품가공 관련직	1.2	0.9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1.7	2.6
농림어업 관련직	1.5	0.6
군인	0.7	1.3

3. 전문대 졸업자의 첫일자리 만족도 및 진학이유

- ◆ 전문대졸 취업자 중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비이수자에 비해 첫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첫 일자리 만족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첫 일자리 유지율이 높으며, 전공심화과정 선택이유 역시 전공 심화 비중이 가장 높았음
- ◆ 전문대졸 취업자 중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의 첫 일자리 만족도를 보면, 모든 항목에서 비이수자와 비교해 만족, 매우만족 비중이 더 높았음
 - 특히 근무환경과 인간관계 측면에서 첫일자리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일하는 시간, 복리후생제도, 개인의 발전가능성 측면에서도 첫 일자리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음
 - 다만 인사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음

〈표 5〉 전문대졸자의 첫 일자리의 만족도

(단위 :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임금 또는 소득	이수자	7.7	20.8	34.8	29.4	7.3
	비이수자	8.0	19.7	39.9	25.8	6.6
고용 안정성	이수자	3.9	12.6	28.4	39.7	15.4
	비이수자	4.3	10.8	34.5	37.8	12.6
근무 환경	이수자	2.9	7.5	26.1	48.0	15.5
	비이수자	3.2	11.2	31.8	40.8	13.1
일하는 시간	이수자	6.9	12.4	25.1	39.8	15.8
	비이수자	7.2	16.5	29.8	35.4	11.1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이수자	4.8	13.2	29.0	37.1	15.8
	비이수자	5.9	17.5	35.9	30.7	9.9
인간관계	이수자	4.1	7.9	22.7	45.7	19.6
	비이수자	3.8	8.6	31.2	40.1	16.2
복리 후생 제도	이수자	6.1	16.2	34.2	31.3	12.2
	비이수자	6.5	15.6	39.5	29.1	9.4
인사체계(승진 제도)	이수자	9.1	15.9	44.8	21.3	8.8
	비이수자	6.9	17.0	49.1	21.5	5.5
하는일의 사회적 평판	이수자	0.9	9.5	33.6	43.3	12.8
	비이수자	2.8	9.7	41.4	36.7	9.5
자율성과 권한	이수자	2.9	11.4	30.5	39.2	16.0
	비이수자	3.9	13.0	37.7	34.9	10.6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이수자	1.0	6.3	36.0	43.9	12.8
	비이수자	2.6	8.5	42.9	36.8	9.2

◆ 전문대졸 취업자 중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의 교육수준 및 기능수준 일치정도를 보면, 비이수자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매치되는 비중이 더 높았음

- 이수자의 교육수준과 하는 일의 수준은 적정 매치 비중이 65.3%로, 하향 매치 비중이 21.6%, 상향매치 비중이 13.1%, 반면 비이수자의 교육수준과 하는 일의 수준은 적정 매치 비중이 63.4%로, 하향 매치 비중이 22.8%, 상향매치 비중이 13.8%로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의 적정매치 비중이 높았음
- 이수자의 보유 기능과 하는 일의 기능수준은 적정 매치 비중이 68.8%로, 하향 매치 비중이 18.2%, 상향매치 비중이 13.0%, 반면 비이수자의 보유 기능과 하는 일의 기능수준은 적정 매치 비중이 65.4%로, 하향 매치 비중이 20.7%, 상향매치 비중이 14.0%로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의 적정매치 비중이 높았음

〈표 6〉 전문대졸자의 첫 일자리의 교육수준과 기능수준의 일치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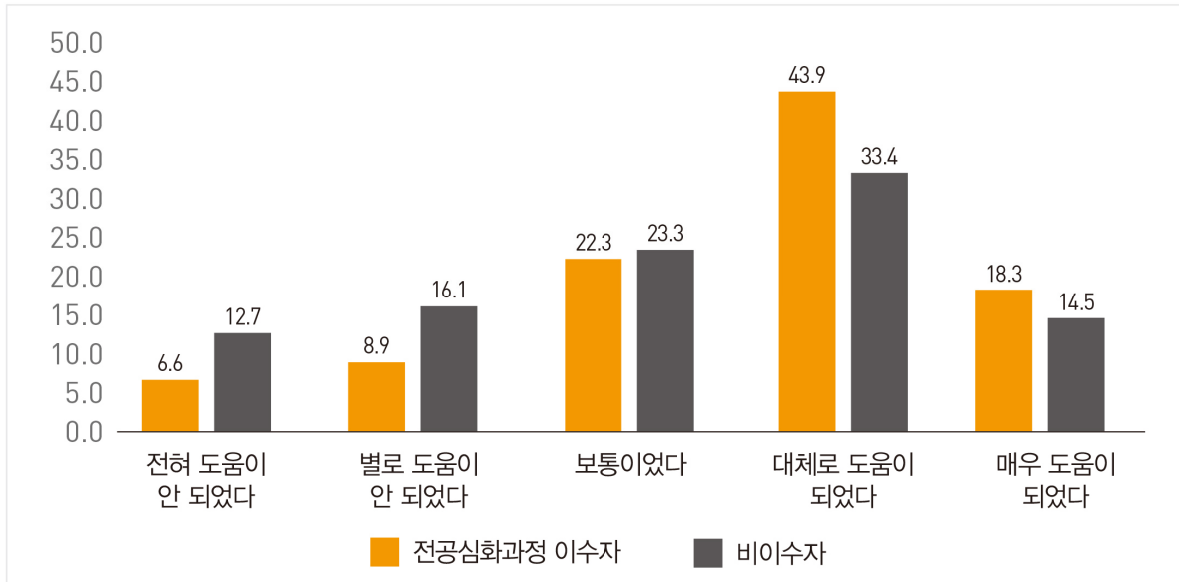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일의 수준이 매우 낮았다	일의 수준이 낮았다	일의 수준이 알맞았다	일의 수준이 높았다	일의 수준이 매우 높았다
교육수준-일 수준 일치정도	이수자	3.0	18.6	65.3	9.2	3.9
	비이수자	3.8	19.0	63.4	11.6	2.2
본인의 기능-일 기능수준 일치정도	이수자	2.5	15.7	68.8	10.5	2.5
	비이수자	3.6	17.1	65.4	12.1	1.9

◆ 전문대졸 취업자 중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의 경우 전공지식이 업무에 도움되는 정도를 보면 50% 이상이 도움되었다고 응답하여 비이수자보다 전공과 업무와의 관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6〉 전문대졸자의 첫 일자리와 대학전공 지식의 업무 도움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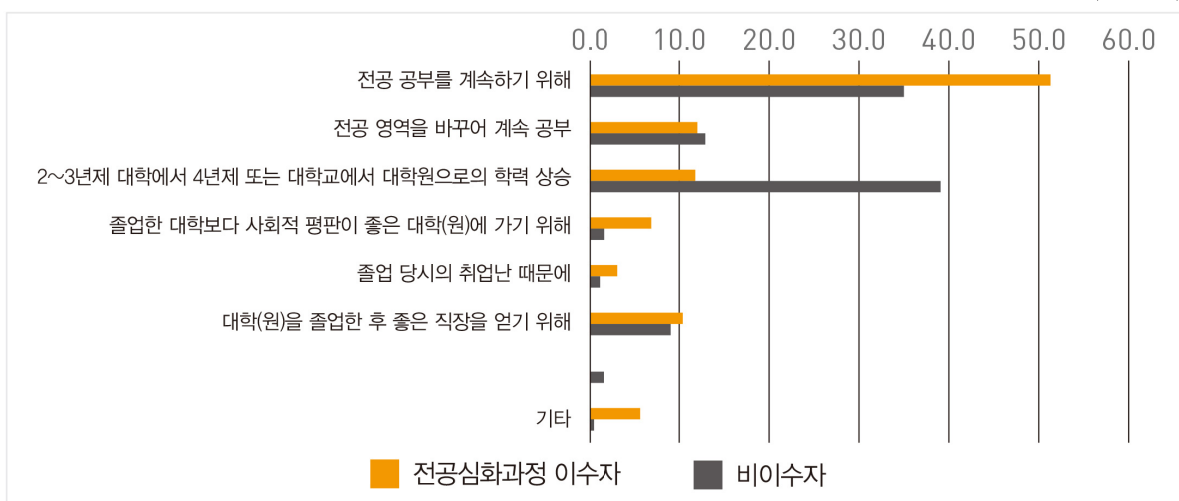


- ◆ 전문대졸 취업자 중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의 경우 편입학 이유를 보면, ‘전공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가 50%로 상당히 높은 반면, 비이수자의 경우 ‘2~3년제 대학에서 4년제 또는 대학교에서 대학원으로의 학력상승’ 비중이 높았음

- 전문대졸 취업자 중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의 경우는 계속교육

〈그림 7〉 전문대졸자의 편(입)학 이유

(단위 : %)



4. 결론

- ◆ 본 연구에서 전문대졸 취업자 중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와 비이수자의 경황상태 및 일자리 만족도, 진학이유 등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전문대졸자의 계속교육 기회확대라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개설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전공심화과정 이수자가 비이수자와 비교하여 취업비중, 양질의 일자리에 종사할 비중이 높아 일자리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에 첫일자리 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했음
 - 또한 일자리와 교육수준, 기능의 매치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의 적정매치 비중이 높았고, 대학(원)으로의 편입학 사유를 보면, 이수자의 경우 전공심화를 위해, 비이수자의 경우 대졸자로의 학력상승을 위해 편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 따라서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전문학사취득 후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문대졸 취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질의 일자리, 그에 따른 낮은 일자리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임
- ◆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대졸자는 대졸자로 옮겨가고 이 때문에 전문대졸 취업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반면, 대졸 취업자 비중은 그만큼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는 것임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자영업 전환 전, 후 사회경제적 특성 변화

- 고령화연구패널을 이용하여 -

이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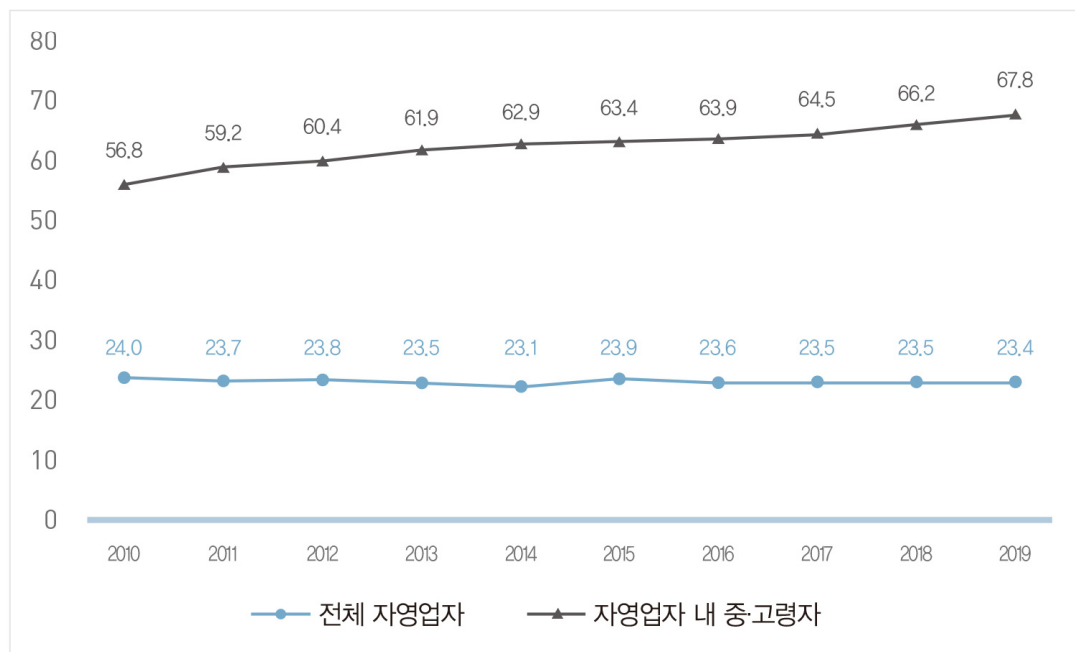
1. 서론

◆ 중·고령자¹⁾ 자영업 비중의 증가

- 국내 경제활동 인구 중 자영업자 비중은 약 23% 수준이며 최근 10년간 일정 비율 유지
- 인구 고령화 영향을 감안하여도 자영업자 내에서 중·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

〈그림 1〉 최근 10년간 자영업자 내 중·고령자 비중 변화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년-2019년

* 고용통계조사팀 연구원(sunho2@keis.or.kr)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약칭: 고령자고용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기준에 의한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와 '고령자(55세 이상)'를 묶어 '중·고령자'로 정의함

◆ 창업과 폐업이 모두 빈발하는 중·고령 자영업 노동시장

- 2017년 기준으로 50대 이상에서는 이하 연령대와 달리 소멸 비율이 신생 비율을 상회함(‘신생: 40.0%, 소멸: 48.2%’, <표 1> 참조)

<표 1> 대표자 연령별 기업생멸 현황(2017년)

(단위 : 천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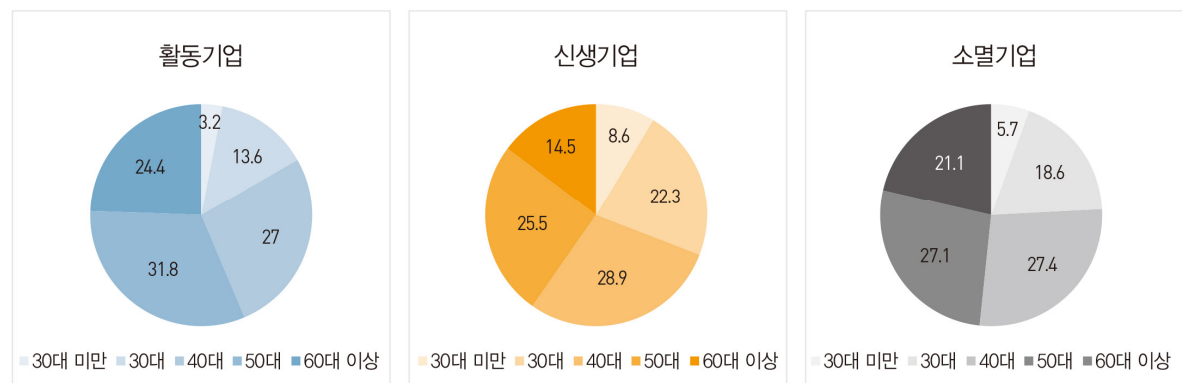
대표자 연령	활동기업		신생기업		소멸기업	
전체	6,051	(100.0)	913	(100.0)	698	(100.0)
30대 미만	186	(3.2)	77	(8.6)	40	(5.7)
30대	843	(13.6)	209	(22.3)	130	(18.6)
40대	1,701	(27.0)	271	(28.9)	191	(27.4)
50대	1,917	(31.8)	228	(25.5)	189	(27.1)
60대 이상	1,398	(24.4)	128	(14.5)	147	(21.1)

주 : 대표자 연령 미상인 기업은 제외

자료 : 통계청, 「2018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의 <대표자 성·연령별 기업생멸 현황>(p.11)을 재구성

<그림 2> 대표자 연령별 기업생멸 현황(2017년)

(단위 : %)



주 : 대표자 연령 미상인 기업은 제외

자료 : 통계청, 「2018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의 <대표자 성·연령별 기업생멸 현황>(p.11)을 재구성

- ◆ 이 글의 목적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자영업 선택의 요인 및 결과를 파악하는 데 있음

2. 분석대상 및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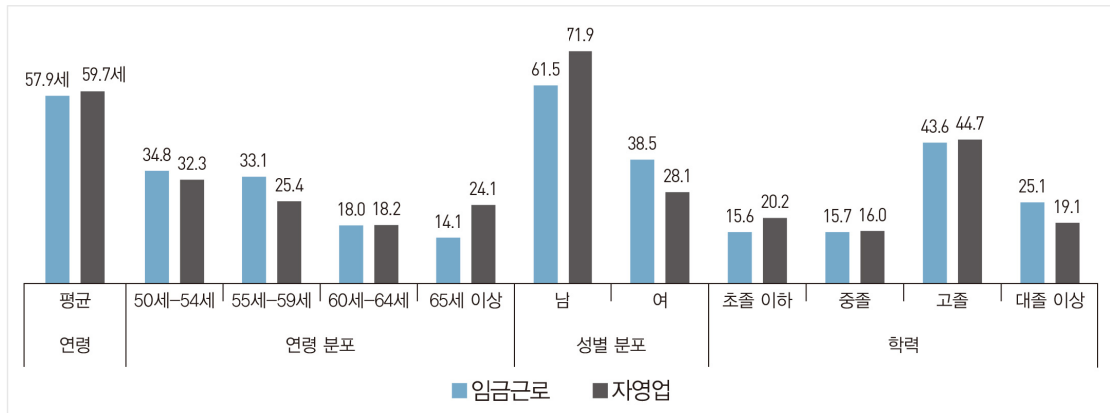
- ◆ 고령화연구패널 2-7차 자료를 결합하여, 현 차수 임금근로에서 다음 차수에 자영업으로 이동한 표본을 분석함(t 시점에 임금근로, $t+1$ 시점에 자영업인 표본 150건)
- ◆ 자영업 전환자와의 비교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 5차 조사자료를 활용함
 - 5차 조사자료는 1962~1963년생 표본이 추가된 자료로, 넓은 연령대와 상대적으로 많은 표본을 보유하고 있는 장점이 있어 비교 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5차 조사자료의 표본 7,949명(기존 7,029명/신규 920명)을 사용함
- ◆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의 특성 비교 및 자영업 이동 후의 대조를 통해, 중·고령 자영업 전환자들이 지닌 특징을 보고자 함

3. 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비교

- ◆ 종사상지위별 인적 특성 비교
 - 먼저 중·고령자 임금 및 자영업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봄
 - 고령화연구패널 5차 자료의 표본 7,949명(기존 7,029명/신규 920명) 중 임금노동자(1,617명)와 자영업자(1,454명)를 비교함
 - 평균 연령은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약 1.8세 높으며, 5세 단위 구분에서도 65세 이상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남성 비율이 높고, 대졸자의 비율이 낮음
 -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연소득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구간별 편차가 심하며, 자산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연령, 성, 학력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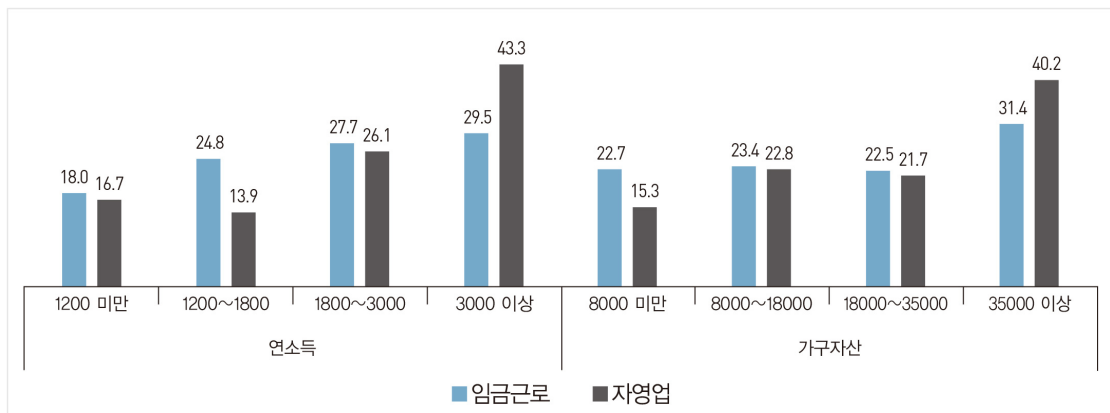


주 : 5차조사 통합가중치 적용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5차 자료

〈그림 4〉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및 자산 비교

(단위 : %)



주 : 5차조사 통합가중치 적용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5차 자료

◆ 자영업 진입 전 상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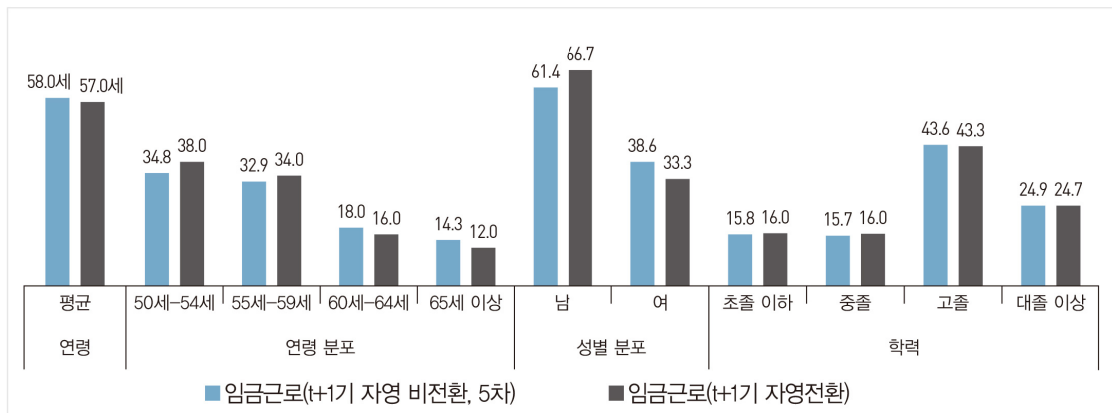
- 〈그림 5〉에서 각 우측의 어두운색으로 표시된 임금근로자는 t+1 시점에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t시기의 임금근로자²⁾(150건)로, t+1 시점에 자영업자로 전환하지 않은 5차 조사의 임금근로자(1,597명)와 비교 실시함

2) 2차~7차 자료를 풀링하여 t시점에 임금근로자, t+1시점에 자영업자인 샘플을 모은 것으로서, 특정 시점과의 엄밀한 비교는 어려움. 제한된 표본으로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사람들의 특징을 찾기 위한 시도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비교를 통해 어떤 특성을 지닌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을 선택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함
- t+1기에 자영업을 선택한 임금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남성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소득 및 자산부분에서 특별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음
-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정부에 의한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신뢰'이며, 해당 값이 낮은 사람이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그림 7) 참조>

〈그림 5〉 임금근로자(t+1기 자영 비전환)와 임금근로자(t+1기 자영 전환)의
연령, 성, 학력 비교(t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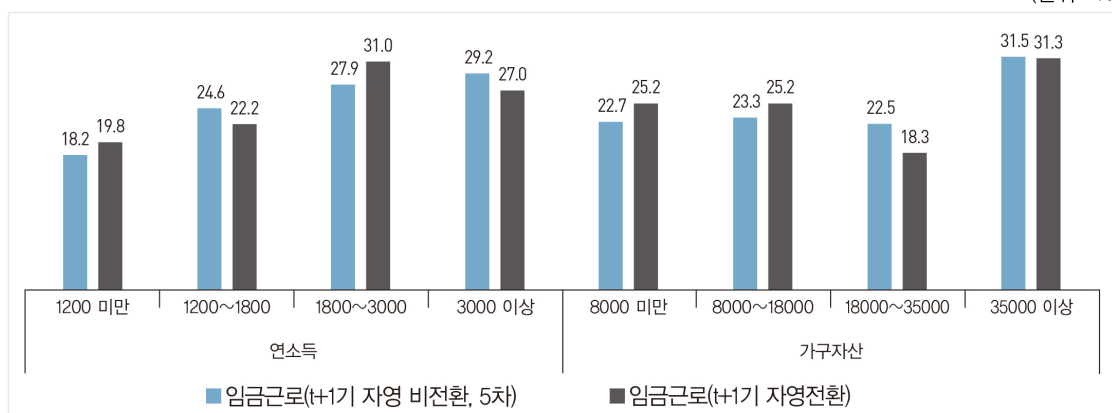


주 : 5차조사 통합가중치 적용(5차 자료)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5차 자료, 2~7차 결합 자료

〈그림 6〉 임금근로자(t+1기 자영 비전환)와 임금근로자(t+1기 자영 전환)의
소득 및 자산 비교(t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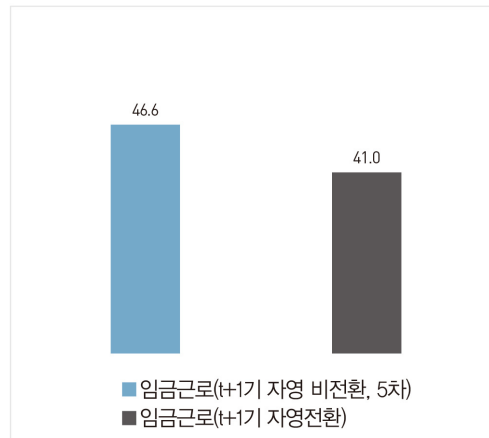


주 : 5차조사 통합가중치 적용(5차 자료)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5차 자료, 2~7차 결합 자료

〈그림 7〉 임금근로자(t+1기 자영 비전환)와 임금근로자(t+1기 자영 전환)의
노후보장에 대한 정부 신뢰 비교(t기)

(단위 : 점)



주 : 0점-그럴 가능성이 없다, 100점-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5차 자료, 2~7차 결합 자료

4. 임금근로 → 자영업 전환자 전, 후 비교

◆ 임금근로(t) → 자영업(t+1) 전환자의 자영업 선택 이유

-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표본 150건을 대상으로 자영업 선택 이유 살펴봄
-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어서’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가 전체 응답의 약 2/3를 차지함
- ‘원하는 수준의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직장에 취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와 같이 타의에 의한 선택으로 보이는 응답은 약 16% 수준에 그침

〈그림 8〉 임금근로(t) → 자영업(t+1) 전환자의 자영업 선택 이유

(단위 :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2~7차 결합 자료

◆ 임금근로(t) → 자영업(t+1) 전환자 전/후 산업 비교

-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150건 표본 중 당시와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60건, 같지 않은 경우는 90건으로 확인됨
- 종사 산업이 달라진 90건을 대상으로 주요 이탈 및 진입 산업을 보면, 제조업(16건), 도소매업(13건), 건설업(10건), 사업서비스업(9건), 숙박음식점업(6건)에서 이탈하여, 농/임업(24건),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11건), 숙박음식점(9건), 도소매업(8건), 금융보험업(7건)으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9〉 참조)
- 동일 표본의 임금근로 시기와 자영업 시기 종사 산업을 비교하면, 위와 같은 이탈/진입 결과가 반영된 분포가 확인됨(〈그림 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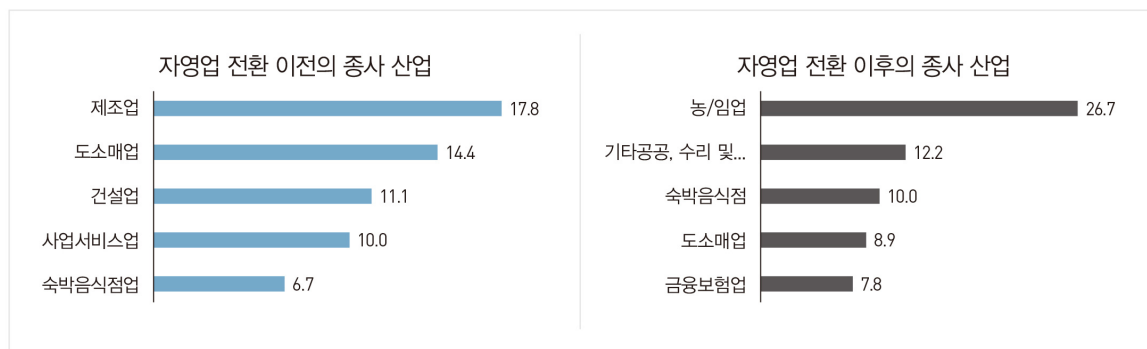
〈표 2〉 임금근로(t) → 자영업(t+1) 전환자 동일 산업 종사 여부

(단위 : 건)

구분	전체	일치	불일치
임금근로(t) - 자영업(t+1) 동일 산업 종사 여부	150	60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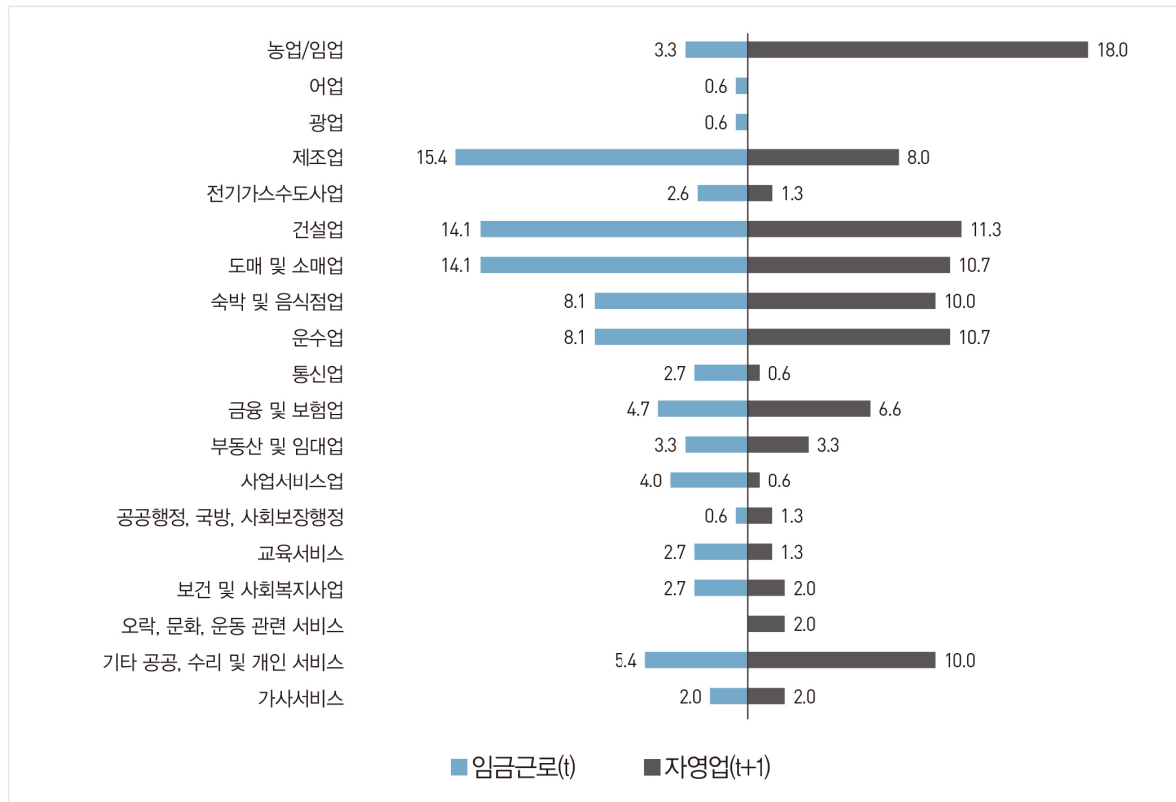
〈그림 9〉 임금근로(t) → 자영업(t+1) 전환자가 이탈/진입이 주로 발생한 산업

(단위 : %)



〈그림 10〉 임금근로(t) → 자영업(t+1) 전환자의 전/후 종사 산업 분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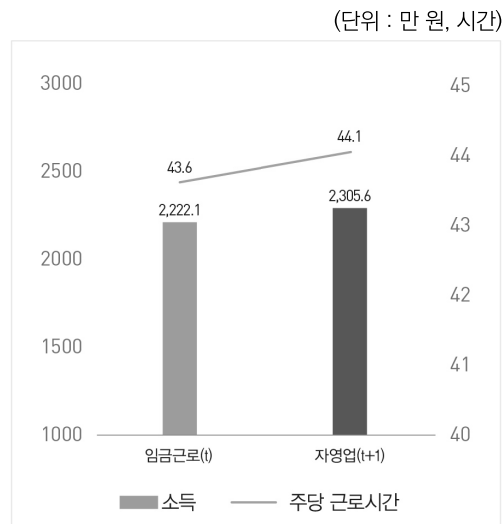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2~7차 결합 자료

◆ 임금근로(t) → 자영업(t+1) 전환자 전/후 근로환경 및 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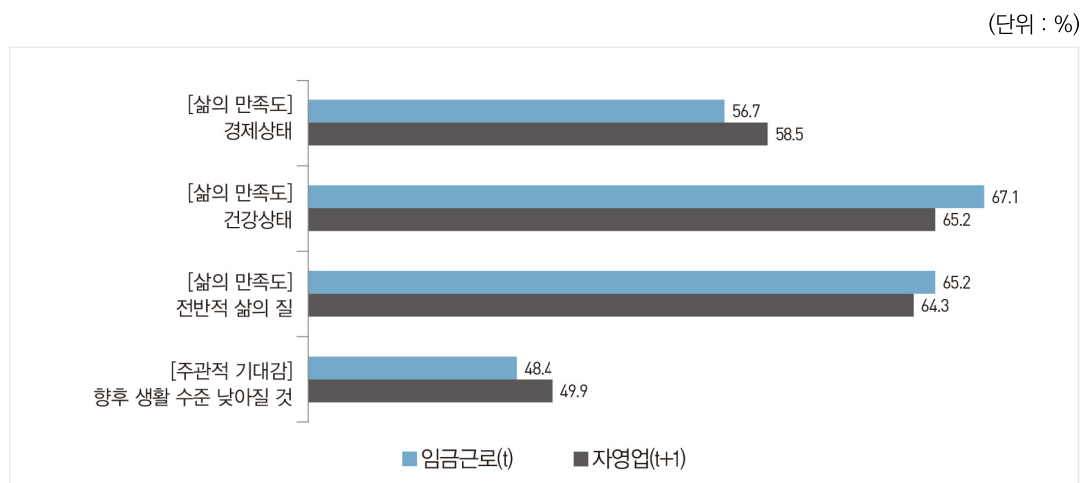
- 근로형태별 소득 및 근로시간을 비교하면,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전환 후 소득이 다소 증가하였고 근로시간도 함께 증가함(〈그림 11〉 참조)
- 만족도 부분을 살펴보면, 전환 후 경제상태는 조금 더 만족스러우나, 건강 및 전반적인 삶의 질, 향후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는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12〉 참조)

〈그림 11〉 임금근로(t) → 자영업(t+1) 전환자의 전/후 연간소득 및 근로시간 비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2~7차 결합 자료

〈그림 12〉 임금근로(t) → 자영업(t+1) 전환자의 전/후 만족도 비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2~7차 결합 자료

5. 요약 및 시사점

- ◆ 자영업 노동시장에서 중·고령자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 고령화연구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50대 이상 중·고령 자영업 진입자가 갖는 차별적 특징에 대한 탐색 시도함

◆ 특히 직장에서 내몰려 자영업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의 전환이 발생한 경우를 집중적으로 살펴봄

- 대체로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연령과 학력, 소득, 자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표본을 차수별로 모아 간단한 비교를 한 결과,
-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임금근로를 유지하는 경우 간 인적 특성이나 자산 보유 수준에서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자영업 전환과 임금근로 유지 간 차이는 정부에서 자신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나타남(자영업 전환자는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낮음)
- 또한, 예상과는 달리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전환 후 답한 ‘자영업 선택 이유’ 문항에 직장에서 내몰려서라기보다는 스스로 원했던 것임을 밝히는 응답이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한편, 자영업 전환 후 평균적으로 소득은 증가하나 근로시간도 같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본인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나 건강상태 및 전반적 삶의 질에 대한 만족은 낮은 것이 확인됨³⁾

◆ 시사점

-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실시한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창업동기는 2018년 기준으로 ‘자신만의 사업을 경영하고 싶어서’(58.6%),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31.1%), ‘취업이 어려워서’(7.8%) 순으로 나타남
- 위의 결과와 함께 종합해보면, 중·고령자의 자영업 진입 중 적지 않은 수는 비단 임금근로에서 내몰리기 때문만이 아니라 제반 상황과 및 개인의 선호를 고려한 자발적 선택의 결과일 수 있음
- 따라서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관철은 일자리(decent job) 유지를 위한 노력 못지않게, 중·고령자로 하여금 관철은 사업장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3) 중고령자 창업이 이하 연령대와 비교하여 영세규모가 많음을 고려할 때, 무급가족종사자 및 이들의 노동에 의한 효과를 구분하여 자영업자의 만족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자료의 한계로 실시하지 못함

고용조사 브리프

2019 · 겨울 · WINTER

